

“고속철도 타고 해남·완도 거쳐 제주도 가자”



완도, 17일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토론회

해남과 공동 주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논의

완도군이 전남 서남권 관광 활성화와 인구 유입 등을 위해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하고 있다.

10일 완도군에 따르면 ‘서울~해남·완도 경유 제주 고속철도 사업’을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오

는 1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지역구 의원인 박지원 국회의원을 필두로 민홍철, 민병덕, 민형배, 허종식, 손명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완도군과 해남군이 공동 주관한다.

완도군과 해남군은 전남 서남권의 균형 발전과 관광 활성화 및 물류 이동 효율성 극대화 등을 위해 서울~제주 고속철도의 육상 구간이 해남과 완도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대내외에 알리고,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토론회를 주관하게 됐다.

서울~제주 고속철도(연장 178.8km)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27조4000억원이 투입될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다. 지난 2007년 전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대

정부 건의문을 발표하며 논의가 시작됐지만 경제성과 수용성 부족 등을 이유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지난해 2월에는 완도군, 해남군, 영암군이 공동으로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고속철도가 건설되면 기상 이변으로 인한 항공·해운 결항 시 불편 해소, 이동 시간 단축, 인적·물적 지원 교류 활성화, 고용 창출, 국내외 관광 수요 증가 등 국가 균형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신우철 군수는 “완도가 해양치유산업을 선도하며 국내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부상함에 따라 더 많은 치유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광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한 정부 여건 개선, 역점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속철도가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속철도 사업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원도=김해국 기자 knk183@

무안, 자연재난 대비 대응체계 정비·점검 겨울철 제설장비 배치·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무안군은 본격적인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발생에 대비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026년 3월 15일 까지) 동안 선제적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군은 폭설·도로 결빙에 대비해 제설 차량(덤프 15대, 소형 11대), 살포기 등을 배치하고 비상근무 체계 점검을 완료했다. 또 제설 전진기지 설치·제설제(1600여t) 확보, 취약 시설 점검 등 사전 대응체계를 갖췄다.

또 올여름 자연 재난의 피해를 계기로 풍수해보험과 정책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해 많은 주민이 가입을 통해 재난에 대비할 수 있게 홍보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인의 재해 예방 조치 소홀 시 재해복구비 미지급’ 정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



스타 팬심…‘사랑의 연탄 나눔’ 실천

트로트 가수 박지현 팬카페 ‘엔돌핀’(회장 김진숙)의 광주·전남 회원 50여명이 최근 목포 연산동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나눔은 박지현 가수의 생일(12월 12일)을 기념해 2023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올해 3회째를 맞았다. 팬카페 회원들은 연산동 고지대에 거주하는 2기구에 직접 연탄을 배달하고, 북향 지역 2세대에는 연탄을 후원하는 등 총 2000 장의 연탄과 난방용품(전기매트)을 전달했다.

영암, 겨울철 폭설·한파 대비태세 강화

영암군은 최근 겨울철 폭설·한파 등 자연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도로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제설 차제와 장비를 배치하는 등 대비태세를 점검·강화 했다.

먼저 교차로·고갯길 등 위험지역 도로 변에 제설장 108개를 설치하고, 긴급 제설과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모래주머니 6000개를 함께 비치해 초기 폭설 시 신속한 대응에 쓰이게 했다.

나아가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1t 6 대, 15t 5대의 자체 제설차량을 확보하고

있는 영암군은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15t 제설용 덤프 2대를 추가 지원받아 제설 능력을 크게 강화했다.

아울러 친환경 제설제 620t을 확보, 11개 읍·면에 24시간 배정을 마쳤다.

상습도로 결빙구간도 사전점검을 마친 군은 여운재, 돈방재 등 15개소에 ‘상습도로 결빙구역 감속 안전운행’ 현수막 30개를 설치해 운전자에게 야간·한파 시 교통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서울 성수동에 ‘진도 곱창김 팝업스토어’ 열린다

군, 12~14일 진행…“김 가치 강화·관광 자원화”

진도군은 12~14일 서울 성수동에서 ‘진도 곱창김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진도 곱창김 팝업스토어’는 성수동의 복합문화공간 ‘디 에이(연무장길 99)’에서 열리며, 진도 곰창김의 매력을 소개하고 젊은 소비자와의 새로운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2024년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에 따른 ‘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의 하나로, 소비시장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1020세대’를 겨냥해 직접 보고, 만지고,

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성수동 팝업스토어는 진도 곰창김의 우수한 품질을 현대적 방식으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둘다”며 “소비자의 반응을 살펴 앞으로도 감각적이고, 세련된 홍보 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진도 김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 자원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 곰창김 팝업스토어’에서는 시식과 다양한 체험 활동이 진행된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신안,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19일까지 참여자 2530명 모집

신안군은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2530여명을 모집한다.

군은 이를 위해 총 9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오는 19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경제적 안정은 물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은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등 3개 유형 총 17개 사업단으로 구성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폭넓게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신안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노인역량활용사업은 만 65세 이상, 공동체사업단은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방문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타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최종 선발된 참여자들은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동안 활동하게 되며, 사업 유형에 따라 월 30시간 또는 60시간 활동하고 월 29만원에서 최대 63만원의 활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김대인 군수 권한대행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아직 사고가 나지 않았다 해서 과연 앞으로도 안전할까요?

더 이상 운에 맡기지 말고 이젠 시스템으로 지키세요!

“바이셀프는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전 산업 디지털 안전관리 플랫폼입니다.”

7대 핵심요소 기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산업·규모 특성별
최적화된 맞춤형 이행

= 근로자는 위험 불안 해소,
대표자는 중처법 대응 완료!

♡동행'' 지역소상공인

● 광남일보 ● (사)광남은화제재단

2025 한정 프로모션 최대 60만원 혜택! 연간이용권 가입 시 최대 100만원 혜택!



Byself 프로모션 및 도입 문의 062-971-1775

중대재해처벌법, 아직 대비하지 못하셨다면?

네이버에 바이셀프를 검색하세요. ▾ Q

